

제 5강 꿈의 이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왕과 같은 집단의 지도자들이 집단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을 참고하였다거나 혹은 집단에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전에 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꾸는 꿈을 신탁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곤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꿈이 이성적 합리적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꿈이 더 이상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꿈을 꾸고 있으며, 그 꿈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생활과 연결시켜 보려 하고 있다.

꿈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최근 백년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심리학자가 무의식적 정신의 측면을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꿈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신활동의 무의식적 배경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사람은 S.프로이트이다. 그는 꿈이 우연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물론 그가 독창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신경증적 증상이 의식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 P. 자네와 같은 당시의 신경학자들의 주장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J. 브로이어와 함께 신경증의 증상들을 연구하면서 각 증상들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무의식적 마음이 증상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꿈도 상징적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떤 이는 언제나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다른 이는 천식발작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이는 걸을 수 없는 다리의 마비의 증상 등으로 경험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신체증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히려 꿈을 통하여 더 다양하고, 정교한 형태들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증상의 유형으로 환원함으로써, 꿈을 무의식을 탐구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꿈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해지면서, 정신분석학자들은 증상의 이해를 위해 꿈의 해석을 필수적인 작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자들의 작업에 반하여, 분석심리학자들은 꿈에서 단순히 증상의 이해를 넘어서 치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C.G. 융은 꿈을 해석하는데 가능한 관계없는 어떤 관념이나 연상을 배제하고 이해하려 함으로써 꿈의 형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꿈을 의식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식의 태도를 갖도록 하려는 무의식의 자발적 활동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 이제 심층심리학자들에 의하여 꿈은 우리가 겪는 여러 정신의 현상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꿈의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꿈은 콤플렉스에 의하여 형성된다.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왕도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꾸는 사람에게 꿈에 나타난 상(像)들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것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상들의 무의식적 배경을 이해하려 함으로써 심리학적 방식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프로이트가 사용한 작업은 '자유연상'인데, 이 '자유연상'의 기법은 꿈꾼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피하려고 한 불쾌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의식의 간섭없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이

‘자유연상’을 꿈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프로이트가 꿈의 이해를 위하여 ‘자유연상’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꿈이 ‘콤플렉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실제적인 꿈의 해석에 있어서 ‘자유연상’을 함으로써 꿈의 콘텍스트에서 벗어나 꿈꾼 사람이 꿈을 꾸는 당시에 처한 상황과 상관없는 어떤 특성의 ‘콤플렉스’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또한 그렇게 꿈의 콘텍스트에서 벗어나 ‘자유연상’을 통해 알게 되는 ‘콤플렉스’는, 이미 치료자가 대체로 짐작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 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순히 어떤 특성의 ‘콤플렉스’(즉 외디푸스-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꿈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르는 단어로 부터, 혹은 어떤 추상적 像으로부터 자유연상을 시작해보아도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봄으로써 옛날의 잊혀진 기억을 들추어내게 되고, 더욱이 잊기를 원하는 불쾌한 기억에까지 소급하면, 소위 하나의 특성의 ‘콤플렉스’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자유연상’의 기법이 꿈의 이해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가의 논의를 떠나서 프로이트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꿈이 ‘콤플렉스’들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용은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가 아니라, ‘콤플렉스’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하였다. 그러면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콤플렉스’는 일종의 감정이 강조된 심상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콤플렉스’는 자장의 중심처럼 강한 정동으로 이루어진 핵요소를 중심으로 각 개인이 경험적으로 취한 여러 심리적 자료들을 끌어당겨 이루어진 것이다. 자아는 주로 이런 ‘콤플렉스’의 존재를 의식의 기능을 방해하는 충동이나 증상들로 경험하게 된다. 각 ‘콤플렉스’는 부분 인격체의 특징을 갖고 있고,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자아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치 의식의 의지력 행사에 방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도 역시 하나의 ‘콤플렉스’이다. 다만 ‘자아-콤플렉스’는 다른 ‘콤플렉스’와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인격의 표면에 떠올라 한 개인의 인격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콤플렉스’들이야말로 사실상 한 개인의 내부에 정신의 내용을 형성하는 기본단위들이다. 이 ‘콤플렉스’들이 개인이 여러 겪는 정신현상을 만들고, 때로는 내적 갈등을 겪게 하는 등, 정신의 생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각 콤플렉스들이 제각기 다른 에너지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하여 다양한 정신의 활동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정신의 내용과 활력의 주체가 다름이 아니라, 콤플렉스들이다.

꿈은 일상적인 ‘콤플렉스’들이 관여된 감정적 충격으로부터 생겨난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순간순간 ‘자아-콤플렉스’의 태도와 전체 무의식의 의향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어진다. 꿈에서 다루는 장면들은 매번의 삶의 상황에 따른 콤플렉스들간의 배치가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꿈은 일상과 유사하지만, 결코 이미 가지고 있던 일상의 장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표현을 시도하는 것이다. 꿈은 낮 시간동안 ‘자아-콤플렉스’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른 다양한 ‘무의식’의 태도가 반영되어 그에 해당하는 ‘콤플렉스’들이 배치된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작업처럼 꿈의 콘텍스트에서 벗어나 ‘자유연상’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콤플렉스’는 바로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콤플렉스를 다루지 않게 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바로 당면한 삶의 문제보다 유아기의 전형이었던 ‘외디푸스-콤플렉스’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매일의 꿈은 유아기의 기억으로 환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아의식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하는가를 전체 정신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꿈의 기능에 관하여

꿈의 기능이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꿈이 꿈꾸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강력한 정서반응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력한 정서를 다양하게 표상화 함으로써 정서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그 정서를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꿈 때문에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프로이트적으로 의식의 검열기능이 충동을 억누르기에 실패한 경우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융은 꿈에서 수면을 지속하기 위해 정서를 줄인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꿈은 의식에 강력한 인상을 남기려고 형상화 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꿈에서 꿈-자아가 놀라서 깨어나게 되는 것 자체도 무의식이 얻고자 하는 효과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꿈에서 생리적 가치 이상의 기능적 의미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꿈은 의식의 경향과 일치하지 않은 ‘무의식’의 고유한 성향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처럼 꿈의 구성요소가 드러내는 자립적 기능을 ‘무의식의 자율성’이라 표현된다. ‘무의식의 자율성’이란 바로 자아를 제외한 ‘콤플렉스’들의 자율성과 관련된 것이다. 흔히들 ‘무의식’의 고유한 성향들은 자아의식의 태도에 매우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민간적으로 ‘꿈은 현실의 반대이다’라고 하거나, 프로이트적으로 “ 꿈은 소원 충족적이다”라고 한다. 융은 꿈에서 드러난 ‘무의식’의 성향에 대하여 ‘보상하기Kompens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때의 ‘보상하기’는 ‘보충 혹은 보조하기Komplementierung’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충 Komplement’은 매우 제한적 개념이므로 꿈의 기능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거의 기계적이지자 강박적 보충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상하기’는 의식과 ‘무의식’이 가진 여러 다른 자료 혹은 관점들을 가지고 서로 상호간의 대화와 균등화를 통하여 새로운 조정 혹은 개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꿈의 기능은 전적으로 ‘무의식’이 가진 ‘보상하기’가 반영되어진 것이다. 매번의 꿈이 나타내는 내용은 ‘무의식’의 ‘보상하기’에 의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이러한 ‘보상하기’의 관점에서 꿈에 나타날 내용적 특성의 세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¹⁾: 첫째, 만약 의식의 태도가 그 자체 고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무의식’과의 관계 일방적이라면, 자연히 ‘무의식’의 태도를 반영하여 꿈은 전적으로 의식의 태도에 반하는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만약에 의식의 분화가 잘 이루어졌지만 일방적이지 않고 ‘무의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 위치를 지킨다면, ‘무의식’의 태도를 반영하여 꿈은 의식의 태도에 대해 비교적 수평적 내용을 나타낸다. 셋째, 만약 의식의 분화가 잘 이루어졌고, 태도가 적당하다면, ‘무의식’이 의식에 동참하는 태도를 취하듯이 꿈도 그런 점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의식에 조연을 한다.

결국 ‘무의식’의 ‘보상하기’의 정도는 각 개인의 의식의 태도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꿈꾼 사람의 현재의 의식의 태도를 잘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의식의 태도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의식’의 의향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꿈에서 ‘무의식’의 보상적 태도를 읽는 것은 증상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노이로제를 비롯한 의식의 통제가 어려운 증상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불일치에서 생겨난 것이다. 꿈에서

1) C.G.Jung, ‘Vom Wesen der Träume’, Par. 545-546

의식과 ‘무의식’의 불일치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 불일치의 해결에 해당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를 꿈에 사용된 심상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시 강조하면, 꿈에 드러나는 무의식의 ‘보상하기’는 전체정신의 균형잡기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 이 기능은 의식적 삶에는 거의 의식이 의지로 통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거의 느낄 수 없다. 이것은 자아의식의 활동이 차단된 수면 상태에서 드러난 ‘무의식’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다. 결국 꿈의 기능은 전체 정신을 고려한 심리적 균형잡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를 꿈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의 ‘보상하기’가 큰 것일수록 자아의식에 인상 깊은 꿈으로 나타난다. 그 ‘보상성’이 강하면 수면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더욱이 자아의식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방향성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일방적이면 꿈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의 보상적 내용은 특별히 강력하게 된다. 이처럼 꿈의 기능은 전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자기통제를 염두에 두고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보상하느냐는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꿈의 ‘보상성’을 어떤 특정의 규칙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흔히들 꿈이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믿어지기도 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꿈에서 ‘무의식’이 앞을 미리 내다보거나 혹은 ‘전망하는prospektiv’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꿈의 ‘전망하는’ 내용도 모두 ‘무의식’의 ‘보상하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보상하기’에는 의식의 현재적 태도에 대한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수행할 행위를 예견하고 미리 연습하거나 혹은 미리 그려보려는 것도 포함된다. 바로 이렇게 ‘무의식’이 예견하고 미리 그려보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무의식’이 의식에 대해 예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무의식’의 활동에는 그 자체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전망을 다루는 심상들은 사실상 의식의 태도를 개선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의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실재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 ‘보상하기’의 결과로 드러난 일치일 것이다. 또한 꿈에서 다루는 것, 그것도 앞으로 있을 것을 다루는 것은 의식에 앞서 작용하는 무의식적 감관인지, 사유, 느낌의 규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의식화 수준에서 자아는 보다 쉽게 ‘무의식’의 의향에 동화되어 ‘무의식’이 지향하는 총괄적 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장면으로 그려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의 의향에 대한 의식의 동참을 종용하는 ‘무의식’의 제안이다. 따라서 미래를 미리 보는 기능이 꿈의 특질이라고 하여 너무 지나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래를 미리 보는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무의식’의 영향력 차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무의식’의 ‘보상하기’로 드러난 꿈의 기능은 자아의 외부조건에의 적응에 관련된 의식의 태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한 개인의 내적 조건에의 적응 정도를 동시에 반영한다. 의식의 태도가 외부세계의 관점에 부족한 사람이 있듯이, 또한 자신의 내면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의식의 태도와 적응의 수행에 있어서 한 개인이 수행할 정도로 잘하게 되어 집단의 이상, 혹은 집단의 장점을 잘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의식의 적응에 이르고 사회적으로도 보장된 위치를 갖게 된다. 이런 사람의 경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음에 반해, 내면의 인격적 면모는 전혀 분화 발전하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무의식’은 부정적으로 보상하게 된다. 이러한 ‘보상하기’의 결과는 꿈에서

‘환원하는 기능reduzierende Funktion’으로 나타난다. 꿈은 의식에 대하여 원래의 가치로 되돌리기 위하여 꿈-자아를 평가절하는 내용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보상하는 경우도 어느 면에서는 ‘전망하는’ 특징이 될 수 있다. 자아의식의 태도를 수정하여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꿈에서 드러난 ‘무의식’의 태도는 ‘개조한다’, ‘준비한다’ 그리고 ‘종합한다’는 태도와 관련된다. 꿈에서 유독 의식을 파괴하고, 해체시키고, 평가절하 하는 ‘환원하는 기능’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신의 준비하거나, 개조하거나 종합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환원하는 기능’은 파괴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치유적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무의식’의 파괴적 성향은 결코 전체적인 성격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²⁾

꿈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의 ‘보상하기’는 정신의 전체적 균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신의 체제의 자기조절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때로는 전혀 정신의 자기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주로 잠재적 정신 질환에 있어서는 ‘보상하기’로 인하여 오히려 발병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종종 무의식의 ‘보상하기’에 의하여 자살이나 비정상적 정신의 활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의식이 ‘무의식’의 성향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이 ‘무의식’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면 ‘무의식’의 보상하기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의식이 여러 ‘무의식’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전혀 태도의 개선이 없거나,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일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무의식’의 ‘보상하기’는 의식이 이해할 수 없는 파괴적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무의식’의 ‘보상하기’가 운명적 정신질환의 출발점처럼 보이는 것이다.

오랜 심층심리치료과정에서 꿈이 제시한 ‘무의식’의 ‘보상하기’를 살펴가면서 작업하면, 점차 꿈을 탐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통찰에 이르게 하는 현상들이 있게 된다. 내용적으로 그 통찰은 의식의 일방성에 의해 깨어진 정신의 균형상태를 바로 잡아가면서 이르게 되는 인격적 변화이다. 매번의 보상의 행위로 드러나는 ‘무의식’의 의향은 정신의 고유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된다. ‘무의식’ 내에 상정된 그러한 목표를 용은 ‘개인의 전인격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다. 다시 강조하면, ‘개인의 전(全)-인격화의 과정 Individuationsprozeß’은 바로 ‘무의식’의 ‘보상하기’에 기초하고 있다.³⁾ ‘무의식’의 ‘보상하기’는 이와 같이 하나의 궁극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의미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꿈에 극적(劇的) 구조에 관하여

꿈이 이해하기 어려기는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꿈이 보여주는 특성의 구조가 있다. 이같이 평균적으로 알려진 꿈들의 구성은 ‘극(劇)’의 구조와 같아서 극과 같이 꿈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로, 꿈은 극에서처럼 배경이 되는 장면의 진술로 시작한다. 이 단계를 ‘도입부 Exposition’라고 나타낸다. 이 ‘도입부’에는 꿈의 장면이 시작되는 장소, 그리고 등장 인물 및 시점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의 꿈에서 “나는 종로 5가 대로변 거리에 있다. 그 길은 주변이 온통 상가로 이루어져 있다. 내 옆에는 나의 동생이 함께 하고 있다. 그녀는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매달고 있다. 때는 이제 막 오후 3시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2) C.G.Jung, 'Allgemeine Gesichtspunkte zur Psychologie des Traumes Par. 487-488

3) C.G.Jung, 'Vom Wesen der Träume, Par. 545-546

서둘러 가고 있다.”라는 꿈의 무대가 되는 장면으로 묘사된다.

두번째 단계는, ‘연루됨 Verwicklung’의 단계이다. 꿈의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차 그 사건에서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루된다. 예를 들어, 위의 꿈에서 “나는 저 멀리 오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녀는 뜻밖에도 중학교 나의 단짝이었던 A이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으로 한 남자가 서둘러 지나가면 그 그녀에게 접근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절정 Kulmination 혹은 급전 Peripetie의 단계’이다. 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에서 어떤 결정적인 것이 생겨나거나 혹은 어떤 것이 뜻밖의 방식으로 전복된다. 위의 꿈을 계속 연결해보면, “나는 왠지 예감이 좋지 않다. 그녀에게 다가간 남자가 갑자기 칼을 꺼낸다. 그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치는 것 같다. 그도 어떤 소리를 치는 것 같았고, 순간 나의 친구는 바닥에 쓰러진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해결 Lysis’ 혹은 꿈 작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어떤 꿈에서는 이 단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꿈에서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 위협적이 되면 놀라서 꿈을 깨게 된다. 전혀 꿈-자아가 그 상황에 반응하거나 처리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해결’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해결’이 제대로 있으려면 꿈-자아가 나름대로 일어난 사건에 참여하여 마무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이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 상황을 보다 손쉽게 해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위의 꿈에서 “나는 놀라서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여전히 무서운 그 남자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 같은 직장 동료 B가 나타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자 언제 쓰러졌는지도 모르게 그녀는 생기있는 얼굴이 되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마지막 단계는 꿈에서 추구된 결과로 종결되게 된다. 위의 꿈에서는 난폭한 낯선 남성에 의하여 일어났던 문제가 제 삼의 인물에 의하여 ‘해결’이 있게 된다.

이상으로 꿈이 가진 극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꿈의 서술에 있어서 가능한 극의 구조로 묘사를 한다면, 꿈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접근이 쉬워진다.

4. 주관단계 Subjektstufe와 객관단계 Objektstufe의 해석방식

분석심리학적으로 꿈을 해석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 이는 꿈꾼 사람이 꿈에서 보여준 의미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에 관한 것이다. ‘주관단계’의 해석은 가응한 꿈의 인물들을 모두 한 개인의 내부에 일어난 심적 사건으로 간주해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객관단계’의 해석은 꿈에 등장한 인물을 외부의 실제 대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꿈에 어머니가 등장하면 꿈꾼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성상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주관단계’의 해석이 될 것이다. 반면 꿈에 등장한 어머니를 꿈꾼 사람의 실재의 개인 어머니로 간주하여 이해한다면 이는 ‘객관단계’의 해석이 될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의 경험은 투사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매일 직접 부딪치는 실재의 인물에 대해서조차도 그 사람 자체에 기인한 내용으로 채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관적 요소로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에서의 인물들은 주관적 요소가 더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콤플렉스’들이 스스로 형상을 선택하고 내용을 채우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이트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꿈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내면에 잠재해 있는 성적 관념으로 환원하여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원에도 문제가 있다.

꿈의 심상들은 존재의 전체성이 관계되는 되며, 또한 매번의 상황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일정한 하나의 관념으로 소급해서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결국 꿈의 심상들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조건 주관적 의미로 보고 꿈들을 모두 '주관단계'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 꿈에 나타난 인물들은 한편으로는 주관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이다. 콤플렉스가 형성될 때에도 언제나 개인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어떤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게 되는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꿈이 생산될 때, 주관적 의미에 따른 것인지 혹은 객관적 의미에 따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꿈꾼 사람과 멀리 있고, 거의 미미한 관계에 있다면, 이는 '주관단계'의 해석이 적당하다. 그토록 멀리 있는 인물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서적 가치 때문에 '무의식'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 식으로 보자면 괴로움을 가진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러한 아득한 심상을 사용하여 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응은 오히려 전적으로 정서적 가치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억의 장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이처럼 괴로운 대상을 어떤 다른 인물로 대치함으로써 해소하려 했다면, 더 더욱 꿈들은 '주관단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주관단계'의 해석이란 꿈의 인물을 가능한 꿈꾼 사람의 내면에 있는 구성 요소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태도로서 이해해 보는 것이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꿈의 인물상을 모두 내면의 콤플렉스들로 환원하여 이해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식은 정신의 전체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정신의 목적 의미에도 매우 부합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꿈의 해석적 태도는 자아의식이 일방적으로 수행하던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반성과 숙고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전체성을 고려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주관단계'의 해석은 의식의 태도를 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때로는 '객관단계'의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꿈꾼 사람이 외부 세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무의식'은 제안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하는 의식의 태도에 대하여 일종의 보상적 내용을 가져오는데, 이때는 '무의식'이 직관적으로 감지한 외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경우 아는 사람이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는 데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꿈은 그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안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마침내 꿈꾼 사람도 저절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의식이 외부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떤 자아가 어떤 위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편협한 의식의 관점을 교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밖에 '객관단계'로 꿈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는 실재의 외부의 삶에서의 중요한 관계가 갈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직면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꿈은 그러한 것들을 다루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주관단계'든, '객관단계'든 궁극적으로 꿈의 장면들은 꿈-자아로 하여금 태도변화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5. 꿈의 해석을 위한 준비

꿈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훈련과 예비지식이 요구된다. 더구나 분석심리학 적 꿈의 해석 작업을 할 경우에, 꿈을 한 개인의 개인사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무의식의 내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꿈에 나타나는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이해와 오랜 시간의 지속적 경험이 요구된다.

꿈의 해석 작업은 우선적으로 꿈을 기억하여 기록하면서 작업은 시작된다. 꿈을 꾸 사람은 해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꿈에 나타난 심상들에 대한 개인연상을 보태게 될 것이다. 물론 해석을 하는 분석가는 꿈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꿈을 꾸 사람의 전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꿈의 꿈 당시의 의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꿈속에 나타난 상들 혹은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꿈에서 한 송이의 ‘장미’를 보았다고 하자. 그 ‘장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장미’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꿈에서의 ‘장미’는 꿈꾸는 사람에서 특정의 사건과 관련된 바로 ‘그 장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꿈꾸는 사람이 어떤 남자로부터 뜻하지 않은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주어졌던 것이라면, 그 콘텍스트에 나타난 ‘장미’는 그 자체 다른 장미와 구분된다. 또한 ‘이 장미’보다는 바로 꿈꾼 사람이 환기하게 된 이러한 개별 모티브가 주로 꿈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 사항이 된다. 꿈의 모티브는 꿈꾼 사람이 환기하는 내용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꿈꾼 사람이 없이는 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꿈꾼 사람에게서 ‘콘텍스트를 취하는 일Aufnahmen des Kontexts’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들 콘텍스트를 바로 꿈꾼 사람이 ‘꿈에 관해 떠오르는 것Einfälle des Traumes’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꿈에 관하여 떠올리게 되는 사실들을 꿈의 콘텍스트가 되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주변에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개인연상에서 꿈꾼 사람은 상대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제공하는 콘텍스트에는 결코 꿈을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을 얻어낼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반드시 꿈꾼 사람이 제공하는 콘텍스트가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꿈꾼 사람이 제공하는 연상으로 주어지는 콘텍스트의 조사는 가장 간단한 예비적 작업에 불과하다. 꿈의 계속적 접근은 심리학적 지식뿐 아니라, 연합능력, 직관, 그리고 세계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더 전문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꿈의 이해를 위해, 육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자의 진단과 같은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꿈의 해설서를 참고로 하여, 꿈에 나타난 모티브의 상투적 이해는 더 더욱 부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꿈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편견을 의식하여 가능한 열려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화나 민속학적 영역에 대한 지식, 원시심성에 관한 심리학과 비교종교학에 관한 지식 등을 요구한다. 이것이 없이는 상징의 가치를 개인의 과거사로 소급하는 일만 되풀이 할 것이다. 용이 소개했던 다음의 꿈을 참고해 보자.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밤에 집을 향해온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다. 거실로 향하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어머니가 마치 상들리에처럼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계속 꿈을 꾸는데)... 밤에 집에서 무서운 소음이 난다. 그래서 살펴보았다. 겁에 질린 말이 집안을 여기저기 마구 달리고 있었다. 그 말은 마침내 복도로 가는 문을 발견하고 복도 창문을 통해 4층에서 거리로 뛰어내려 버렸다. 나는 그 말이 온통 부러진 채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⁴⁾

위의 꿈에는 같은 모티브를 가진 두 개의 다른 장면이 연출되어 있다. 두 번씩이나 같은 모티

4) C.G. Jung, ‘Über die Psychologie des Unbewußten’, in: G.W.Bd. 7, Par. 146

브를 다룰 정도로 강한 정동성의 ‘콤플렉스’는 대부분 ‘개인무의식’보다는 ‘집단무의식’에 기초한 심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꿈은 분명히 꿈을 꾸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꿈에서 어머니와 말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심상 자체가 어머니와 말이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심상이 어머니와 말을 동격으로 다루고 있음으로써, 그 두 개의 심상 모두 외부의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꿈에서의 어머니는 실제의 꿈꾼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화적 인물, 즉 ‘원형상’이며, 특별히 모성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 의식을 생산하던 근원적 정신을 나타낸다. 어머니와의 동격인 말 또한 신화나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으로, ‘영웅’은 이 말에 의존하여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다. 말은 ‘영웅’이 힘을 주는 근원이며, 지지와 보호를 아끼지 않는 본능적 측면이므로, 또한 무의식적 정신, 즉 의식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꿈에서는 어머니나 말의 형상을 통하여 근원적 정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용은 같은 모성이지만,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낸 근원적 정신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보다 더 본능 및 신체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꿈꾼 사람이 아마도 기질적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해석하였다.⁵⁾

여기서 만약 꿈에서 ‘모성상’을 실제 개인의 어머니로 이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꾸고 자신이 처한 운명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의 어머니를 걱정할 것이다. 꿈에서 왜 말이라는 형상을 빌어 같은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재현하였겠는가? 이 형상도 실제의 말로 여기거나, 아니면 엄청난 성적 충동의 분출의 형상화로 볼 것인가? 이 꿈을 꾸 사람은 실제로 얼마 후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꿈의 이해에 있어 심상을 실제의 대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떤 특정의 원인이 되는 정신의 기본요소로 환원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용은 꿈의 이해에 있어 전혀 연상이 안되는 심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꿈꾼 사람이 떠올리는 것 외에 꿈의 심상들이 가진 내포된 의미들을 더 확장해가며 이해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확충법 *amplificatio*, *Erweiterung*이라 한다. 이 방법은 꿈의 심상들에 대해 꿈꾼 사람이 떠올리게 되는 개인의 연상 뿐 아니라, 인류가 역사적으로 사용한 상징적 의미까지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꿈의 내용에서도 꿈에 등장한 ‘어머니’는 개인의 콘텍스트에서 확충의 방식으로 나아감으로써 집단 정신에 기초한 보편적 의미로서 다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꿈의 해석에서 모든 꿈이 다 같이 다루어질 수 없다. 원시인들은 그래서 ‘큰 꿈’과 ‘작은 꿈’을 구분한다. 즉 ‘작은 꿈’은 주관적이고도 개별적 영역에서 다루며, 일상성에서 그 의미를 구한다. 것처럼 이언 꿈은 쉽게 잊혀진다. 그러나 삶에서 최초로 기억되는 꿈과 같은 것으로 도무지 개별의 지식을 동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특별성은 ‘개인의 전(全)-인격화의 과정’과 연관지어야 할 꿈이다. 이런 꿈들에는 소위 ‘신화적 모티브’ 즉 ‘신화소 *Mythologeme*’가 포함되어져 있다. ‘신화소’ 혹은 ‘신화적 모티브’는 ‘집단무의식’의 ‘원형’이다. 이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뿐 아니라, 개별의 꿈, 환상들, 망상에 걸쳐 일치하는 심상 혹은 형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들이 개인의 사례에서 자주 나타남은 인간의 영혼이 한편으로는 일회적, 주관적 그리고 개인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이고 객관적이며, 마치 인종적 편재성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요소를 가진 ‘큰 꿈’은 의식에 가까운 ‘개인무의식’보다 더 깊은 ‘집단무의식’의 층에서 유래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관성이 제외되고,

5) 전개서, par. 146

그 자체 독특한 특성의 표현방식이 드러나는데, 때로는 시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가져오거나 무섭고도 누미노스한 힘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큰 꿈’은 개인의 삶의 운명적 결정을 내리게 하는 단편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첫 유년기에, 사춘기에, 삶의 중반부에, 삶의 마감의 시기에 나타난다.

6.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들: 환원적-분석적 이해와 목적적-구성적 이해

프로이트의 해석에서는, 심상이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가 아니라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프로이트가 심상을 ‘상징’이라고 하지만, 성애적인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꿈에서 긴 막대기는 실제의 막대기를 위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을 지시한다. ‘검열’ 때문에 성적인 것이 그대로 노출될 수 없어서 다른 대상의 심상으로 표현되었지만, 분명히 어떤 것을 이미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의 심상들은 ‘상징’이 아니라, 기호가 되버린다. 다른 영역의 학자들은 왜 굳이 정신분석학자들만이 심상이 성적인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읽어야 하는가를 반문한다. 그럼에도 프로이트의 견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꿈과 같은 심상들, 즉 전혀 의식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심상들이 과연 기호라고 할 것인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심상이 성애적인 것을 지시하거나 그 형상에 상응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의 구분은 해석의 작업과는 상관없는 논의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심상이 성애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찾는 작업은 어디까지나 심상의 형성과정에서 이해를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의 해석 작업은 심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느낌이나, 인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이트는 꿈의 장면에서 성애적 소원을 충족하는 심상을 다루어 계속적으로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꿈의 영향력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보면 같은 성애적인 것을 나타내더라도 어떤 때에는 자물쇠라는 심상을 사용하고, 또 다른 때에는 몽둥이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상의 선택이야말로 무의식적 정신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그러한 선택은 바로 심상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될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융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 남자가 자물쇠에 열쇠를 꽂거나 또는 무거운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또는 철퇴로 문을 부수는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무의식이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특성의 상들 중 하나 - 그것은 열쇠, 몽둥이, 혹은 철퇴일 수 있다 -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으로 해결할 문제는 왜 몽둥이가 아니라 열쇠를 선택했는가 혹은 왜 철퇴 대신 몽둥이를 선택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꿈에 표현된 것들은 전혀 성적인 것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리적인 것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⁶⁾

이 구절에서 프로이트의 ‘환원적-인과적’ 해석으로는 어떠한 형상을 선택하여 왜곡을 시도하던 그것의 근본적인 함의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든, 정신분석학적으로든 실제 꿈에서 드러난 심상은 의식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상식적인 물건일지라도 상징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6) C.G. Jung, ‘Zugang zum Unbewußten’, in: Der Mensch und seine Symbole, S. 25

융은 일찍이 꿈에서의 심상이나 환상 등을 기호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하려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융은 프로이트처럼 꿈을 ‘인과적-환원적’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을 ‘분석적 해석analytische Deutung’이라 부르고, 이러한 방법이 주로 정신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성요소를 밝히는 ‘분석적 해석’을 하게 되면 자연히 심상들은 기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심상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상이 등장하게 되는 의미와 목적을 묻게 되며, 이러한 방식은 심상이 경험할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력을 고려한 해석으로 융은 ‘구성적 해석konstruktive Deutung’이라고 하였다.⁷⁾

융이 하나의 꿈을 두 가지 해석적 방법으로 비교하였는데,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꿈에 누군가 꿈꾼 사람(미혼의 여성)에게 선사시대의 고분에서 발굴한 화려하고도 장식이 잘 된 오래된 검을 건네주었다. 이 꿈에 대하여 꿈꾼 사람은 그 검이 아버지의 검으로 연상되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의지가 강한 남성으로 부각되어져 있었다. 계속해서 그 검은 다혈질적이고 저돌적인 켈트족의 검으로 자신의 혈통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연상하였다. 이 꿈에 대하여 ‘분석적 해석’에 따르면 그녀가 ‘부성-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검은 그녀의 남근적 환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구성적 해석’에 따르면 그녀가 아버지의 강력한 힘과 무기 및 전통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내부에 아버지와 같은 잠재적인 강인함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언제나 수동적이며, 성적 환상에 사로 잡혀있었던 것이다. 꿈은 이제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의식의 삶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도록 제안하기 위하여 그러한 심상을 선택했던 것이다.⁸⁾ 이상의 두 해석에서 검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난다. ‘분석적 해석’에서는 검이 남근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구성적 해석’에서는 형상 그대로의 검이다. 그럼에도 해석을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꿈의 이해에서 꿈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연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심상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심상에 받은 인상이나 영향력은 제외시키고 있다. 꿈꾼 사람에게 요구한 ‘자유연상’은 심상을 저절로 정동성이 강하게 걸려있는 최초의 상(prima figura)으로 소급하게 하는 환원적 방법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프로이트의 ‘인과적-환원적’ 해석 작업은 정신의 기본요소를 밝히는 것이지만, 그 구성요소가 만들어낸 심상의 의도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융은 심상이라면 무엇이든 심지어 병리적 증상이든 그것이 가지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목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상징이해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다시 강조하면 꿈과 같은 무의식의 산물들의 이해를 위하여 소위 인과론적 그리고 목적적final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 목적론Teleologie의 개념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목적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꿈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의 목적성은 단지 내재적인 심리학적 목표지향성을 의미하므로, ‘목표지향성’ 대신 심상이 가진 ‘목적 의미Zwecksinn’를 고려하는 것이다. 모든 심리학적 현상들에는 그러한 ‘목적 의미’가 내재하며, 또한 단순한 반응현상에도, 예를 들면 정서반응에도 마찬가지로 내재한다. 가해진 상해에 대한 분노는 복수로서 그 목적적 의미를 가지고, 상실에 대해 만나보고 싶어서 가지게 되는 슬픔은 다른 사람에서 공감을 자극하는 ‘목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한 여성 환자의 꿈을 예로 들어 ‘인과적-분석적’ 해석과 ‘목적적-구성적’ 해석 방식

7) C.G. Jung, ‘Die Transzendente Function’, in: G.W. Bd. 8, par. 147-148

8) 전게서, par. 149

에 의하여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용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자.

상당히 폭이 넓은 시내를 건너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강 주변의 위치를 찾는다. 강을 막 건너려는데 물에 숨어있던 커다란 게(Krebs)가 발 근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서 잠을 깬다.⁹⁾

꿈꾼 여성은 꿈에서 시내를 건너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으로 연상하였고, 비록 쉽지는 않지만 치료를 통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물 속에 숨어있던 게는 ‘암’을 떠올리게 하였고(독일어 Krebs는 게이저 암이란 뜻이다), 동시에 ‘암’에 걸린 부인을 생각했다. 그녀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 동성애적 관계에 있는 그 부인 때문이라고 느꼈다. 이상의 꿈에 대하여 ‘인과적-분석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나 자신은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즉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친구들의 가위(말하자면 껌안기)에서 떠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유아적 소원 같은 것으로, 어머니가 다시 한번 가슴에 나를 껌안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¹⁰⁾

위의 ‘인과적-분석적’ 해석으로 꿈을 이해한다면, 꿈은 꿈꾼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새삼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적으로 그녀가 강력한 유아적 소원이 있으며, 그것이 그녀의 병리적 원인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꿈꾼 사람이꿈에 대해 전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꿈꾼 사람은 두려워서 잠을 깬 정도로 꿈의 장면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용은 이러한 ‘인과적-분석적’ 해석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우선 환자에게 떠오른 생각, 예를 들면 게(Krebs)에 대해 암을 연상한 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여전히 왜 특징적인 상징의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왜 여자친구-부인이 게로 나타나는가? 여자친구-부인을 더 아름답게 조형적으로 요정 같은 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셋째로 인과적 환원적 처리방법에서 꿈은 주관적 현상이므로, 게를 결코 여자친구인 부인과 관련지을 것이 아니라, 주제 즉 꿈꾸는 사람 그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꿈꾸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꿈 그 자체이다. 그녀는 시내이고, 건너갈 다리이고, 게인데, 이런 심상 하나하나의 무의식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경향에 대한 표현에 해당한다.¹¹⁾

위의 구절에서 보듯이 ‘인과적-분석적’ 해석에서는 모든 심상을 꿈꾸는 주체의 과거적 사실로 소급하여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꿈에 등장하는 인물상을 실제의 인물로 간주하려는 면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용은 ‘인과적-분석적’ 해석에 따른 심상의 이해는 비록 과거로 소급시키긴 하지만, 전적으로 꿈꾸는 이의 내부의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간과하지 않는다. 프로이트의 ‘인과적-분석적’ 해석 자체는 분명히 심상을 인간 내부의 어떤 문제로 환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심층심리학자들이 다른 영역의 학자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실제의 작업에서 심층심리학자들조차도 꿈의 인물상을 실제의 상응하는 외부의 인물로 간주하고 이해하려 한다. 이는 다시 꿈의 심상을 기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9) C.G. Jung, ‘Über die Psychologie des Unbewußten’, in: G.W.Bd. 7, par. 123

10) 전계서, par. 128

11) 전계서, par. 129

그밖에 실질적으로 꿈의 해석에서 ‘인과적-분석적’ 방식에 따른다면 ‘주관단계’의 해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제의 작업에서 주로 외적 상황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을 분해하여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과적-분석적’ 방식으로는 제대로 ‘주관단계’로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된 ‘주관단계’로의 해석은 외적 상황의 기억과 분리시켜 주로 꿈꾸는 주체의 무의식의 경향 또는 의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¹²⁾ 이제 ‘인과적-분석적’ 해석이 아니라, ‘목적적-구성적’ 해석을 시도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다.

극복해야 할 장애가 그녀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렵게 넘어가려는 것과 그것에 저항하려고 하는 경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순간에 어떠한 특별하고도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이 임박해 있다. 그것은 어떤 동물적인 것(비인간적 혹은 초인간적인 것)인데, 깊은 심연으로 뒷걸음치며, 꿈꾸는 사람의 전체 인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위협적 힘이다.¹³⁾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석적 해석’에서는 자연히 ‘객관 단계’로의 해석이 되면서 그녀를 방해하는 힘이 실제의 다른 주변 인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단계’로의 해석에 의하면 방해하는 힘은 꿈꾸는 사람의 내부에 있는 어떤 요소로 드러난다. 그녀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위협적인 요소는 그녀의 내부에서 발견되지만, 결코 그녀의 주관으로 소급시킬 수 없는 ‘계’라는 동물로 나타났다. ‘계’는 꿈꾼 사람이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개인적인 것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녀를 위험에 빠트리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꿈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투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의한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이러한 비개인적 요소를 치료자인 융에게 투사하여 융을 자신에게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경험하였다. 이처럼 ‘원형상’들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동일시하는 요소로,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주관단계’로의 해석에서 그 요소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의 어떤 요소로 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분석심리학은 그것을 객관정신적 요소임을 주지하는 것이다. 결국 꿈에 대하여 ‘구성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꿈꾼 사람은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부의 사실들로 통찰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주관단계’로의 해석이란 심상들을 정신의 구성 요소에 소급하여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지만,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집단무의식’의 ‘원형’이라는 구성 요소만을 밝히는 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어떤 ‘원형’이 지배적인가를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형’이 지배적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가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의식이 그에 따른 반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다시 강조하면,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를 위하여 심상들의 이해는 ‘인과적’ 관찰 뿐 아니라, ‘목적적’ 관찰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드러난 심상의 ‘목적 의미’를 반드시 고려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⁴⁾ 심상이 드러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의식에 이해되고 수용되기 위해서이므로, ‘목적 의미’의 관찰은 반드시 의식의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읽혀지게 될 것이다.

12) 전게서, par. 123

13) 전게서, par. 131

14) C.G. Jung, ‘Allgemeine Gesichtspunkte zur Psychologie des Traumes’, in: G.W. Bd. 8, par. 456